

로봇 주차·변신 상용차...미래 모빌리티 신기술 '탄성'

첨단기술 자동차 한 자리에...광주미래산업엑스포 가보니

현대차 비즈니스 플랫폼 차량 ST1, 광주 1대 뿐인 EV3 눈길
벤츠·BMW·렉서스 등도 최신 전기차 선보이며 기술력 뽐내
오토쇼 없는 광주서 신형차 만남...자동차 애호가·시민들 발길

기아 EV3, 현대차 ST1, 벤츠 EQA, 렉서스 RX 300h... 지난 주말 국내 외 완성차 기업들의 신형 차량을 한 자리에 만나볼 수 있는 자리가 마련돼 자동차 애호가부터 일반 시민들까지 발길이 이어졌다.

지난달 27일부터 29일 광주 김대중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 광주미래산업엑스포'는 현대차그룹을 비롯한 다양한 브랜드의 미래 모빌리티를 선보였다. 광주-전남지역은 별다른 모터쇼 행사가 없는 탓에 다양한 브랜드의 신형 차량을 직접 보고, 탑승까지 해볼 수 있어 남녀노소 모두에게 호응을 얻었다.

무엇보다 기업들이 미래 모빌리티를 중심으로 전시 차량을 마련해 각 완성차기업의 기술력을 엿볼 수 있었다.

먼저 현대차그룹은 지난 엑스포 기간 '현대차그룹 테크관', '현대차관', '기아관' 3곳을 운영했다. 약 1056㎡ (320평) 규모의 현대차그룹 테크관은 현대차그룹 기술전시관과 기아 라온지, 협력사 기술 전시 및 설비시연 부스를 구성했다.

특히 기술전시관에서는 보스턴 다이내믹스에서 개발한 로봇개 스팟(SPOT)이 방문객의 눈길을 끌었다. 스팟은 카메라로 주변을 촬영한 후, 영상을 관람객에게 보여주는 이른바 '패트롤' 로봇으로 어

린이부터 성인까지 스팟에게서 눈을 떼지 못했다. 주차로봇이 어플리케이션으로 차량을 주차, 출차하는 시연 과정도 선보였다.

전민규(35)씨는 "단순히 신형 차량만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현대차그룹의 로봇기술력까지 볼 수 있어 눈이 즐겁다"고 말했다.

또 현대차그룹은 별도의 협력사 전시 부스를 마련하고, 로봇을 활용한 생산설비 시연을 선보였다. 테크관 좌우로 설치된 현대차관과 기아관은 차량 구매를 앞둔 시민들의 방문이 많았다.

현대차관에는 ST1과 아이오닉 5, 아이오닉 6, 코나 일렉트릭이 전시됐는데, 지난 4월 출시한 ST1 반응이 뜨거웠다.

ST1은 운전자의 사용 목적에 따라 형태를 최적화할 수 있는 비즈니스 플랫폼 차량으로 미래 모빌리티 산업의 변화를 보여주는 현대차의 대표 모델이다. ST1은 미래 모빌리티 탑재 76.1kWh 배터리를 탑재해, 1회 충전 주행 가능 거리가 300km 넘는 스펙을 갖췄다. ST1은 특히 광주-전남에서 전시차가 단 한대도 없어 차량 실물을 보기 위해 찾은 방문객도 있었다.

현재 시중에는 ST1은 물론 특화 모델인 카고, 카고 냉동을 판매 중인데, 상용차가 필요한 방문객들



지난 28일 광주서 서구 김대중 컨벤션센터에서 열린 '2024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 시민들이 기아 EV3 차량을 시승하고 있다.

은 운전석은 물론 화물적재 공간도 살피며 큰 관심을 보였다.

기아관에는 EV3, EV6, EV9, 레이EV 등 기아의 EV시리즈를 한눈에 볼 수 있었다. 특히 지난달 출시된 소형 전기 스포츠실용차(SUV) 기아 EV3가 이목을 끌었다.

EV3는 지난달 4일 계약을 개시한후 1주일 만에 6000대가 예약되면서, 기아의 전기차 대중화 대표 모델다운 반응을 얻고 있다.

기아 전시관 관계자는 "광주에는 EV3 전시차가 서평주지점에 단 한대 뿐이라, 방문객들이 가장 큰 관심을 보이는 것 같다"며 "실제 구매상담까지 이어지는 경우도 있었다"고 말했다.

현대차그룹 외에도 벤츠와 BMW가 실내 부스를 마련하고 벤츠 EQA, EQB, BMW ix 시리즈를 선보였다.

또 토요타와 렉서스, 폭스바겐 등은 실내 전시장을 벗어나 야외전시장에 차량 10여 대를 전시해 방

문객은 물론 시민들에게 기술력을 뽐냈다. 전시장에서 만난 김현수 숭의과학기술고등학교 자동차과 3학년 학생은 "자동차에 큰 관심이 있는데, 광주에서도 다양한 브랜드의 차량을 직접 타볼 수 있어 좋은 경험이 됐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광주미래산업엑스포에서는 드론, 전기 비행기 등 다양한 미래 운송수단을 체험하고 관람할 수 있는 공간이 마련됐다.

글: 사진·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기아, '키자니아 부산'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개관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
드라이빙 트랙 등 공간 마련

기아는 1일 '어린이 직업 체험 테마파크인 '키자니아 부산'에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을 개관한다'고 밝혔다. <사진>

기아의 브랜드 체험공간인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은, 지난해 10월 '키자니아 서울'에서 처음 선보인 이후 이번이 두번째다.

체험관에는 전동화 기술 체험과 'PBV' (Platform Beyond Vehicle) 기술 등 넓은 범위의 미래 모빌리티 기술을 체험할 수 있는 다양한 체험활동으로 구성된다.

기아는 어린이의 눈높이에 맞춘 자동차 연구소, 운전면허시험장, 드라이빙 트랙 등 체험공간을 마련했다.

기아는 키자니아 부산의 모빌리티 직업 체험관 오픈을 기념해 7월 한 달간 부산지역 기아 지점 및 대리점을 방문해 '기아 스토어 방문 이벤트'에 참여하는 고객 중 선착순 2만5000명에게 입장권 할인 쿠폰을 증정한다.



기아 관계자는 "다양한 체험 프로그램을 통해 자동차에 대한 쉽고 재미있는 경험을 더욱 폭넓게 제공할 것"이라며 "많은 어린이들이 창의적 영감

을 일깨워 미래 모빌리티 산업을 이끌 인재로 성장해 나갈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1~5월 국내 수입차 판매 5년만에 가장 적어

10만2957대...수입액 4년만에 최소

올해 1~5월 국내 수입차 판매대수가 5년만에 가장 큰 폭으로 감소했다. 수입차 수입액 역시 4년 만에 가장 적었다. 지난달 30일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와 한국수입자동차협회(KAIDA), 관세청에 따르면 올해 1~5월 수입차는 10만2957대 팔린 것으로 집계됐다.

수입차 판매량은 KAIDA 통계에 테슬라 수입차, 주문자 상표 부착 생산(OEM) 수입차(한국 GM·르노·코리야)를 합산한 수치다. 1~5월 기준 올해 수입차 판매량은 2019년 9만6494대 이후 5년 만의 최저 수준이다. 지난해 10만5778대보다 9284대 적다.

최근 5년간 1~5월 기준 가장 많은 수입차 판매대수를 기록한 해는 2021년(12만9535대)이

었다.

1~5월 기준 지난 5년간 수입차 수입액을 살펴봐도 올해가 4년 만에 가장 적은 수준이었다.

올해 수입차 수입액은 56억2346만달러로, 2020년 48억8266만달러 이후 가장 저조한 실적이다.

작년 동기 수입액 70억2583만달러와 비교하면 약 14억달러 줄어든 액수다.

올해 들어 수입차 판매대수와 수입액이 예년보다 줄어든 배경으로는 중동 분쟁 여파에 따른 홍해 지역의 위험성이 불거진 '홍해 사태'로 불황 공급이 원활하지 않은 데 따른 것으로 보인다.

여기에다 올해 1월부터 취득가액 8000만원 이상 법인 승용차에 연도색 번호판을 의무적으로 부착하도록 한 제도가 고가 수입차 시장에 어느 정도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연합뉴스

벤츠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 7년 연속 수상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가 7년 연속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을 수상했다. <사진>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1일 "한국소비자협회가 주관하는 대한민국 소비자 대상에서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 부문을 수상했다"고 밝혔다.

'글로벌 베스트 브랜드'는 품질, 서비스, 가격 등 전반에서 높은 고객 만족도를 보인 기업 및 브랜드에 제공되는 상으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2018년 첫 수상 이후 7년 연속 선정됐다.

벤츠는 "국내 고객들의 다양한 요구를 파악하고 이를 충족시키기 위한 비즈니스 활동에 역량을 집중시키고 있는 점을 인정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올해 브랜드의 핵심 모델인 '더 뉴 E-클래스' 등을 출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는 최상위 전기 SUV '메르세데스-마이 바츠 EQS SUV', 럭셔리 오프로더 '더 뉴 G-클래스' 등을 선보일 예정이다.

한편,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는 한국능률협회 컨설팅이 주관하는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



(KSQI)'에서도 차별화된 서비스 품질을 인정받았다. 또 지난해 '수입자동차판매량' 산업 부문에서 9년 연속 서비스품질 1위 기업에 이름을 올렸고, '수입인중중고차' 산업 부문에서도 3년 연속 1위 기업으로 선정된 바 있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현대차, 인도네시아 교두보 동남아 시장 공략 속도 낸다

생산·판매 현지 밸류체인 구축

현대차가 인구 약 7억명의 아세안(동남아국가연합) 자동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해외 생산법인 중 가동률이 가장 높은 인도네시아 생산법인(HMMI)을 필두로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아세안 지역에 점유율을 높여나갈 계획이다.

1일 현대차에 따르면 현대차는 아세안 지역 각국 정부의 자동차 지원 정책 강화와 선호 차종 다양화에 대응해 인도네시아를 교두보로 삼을 계획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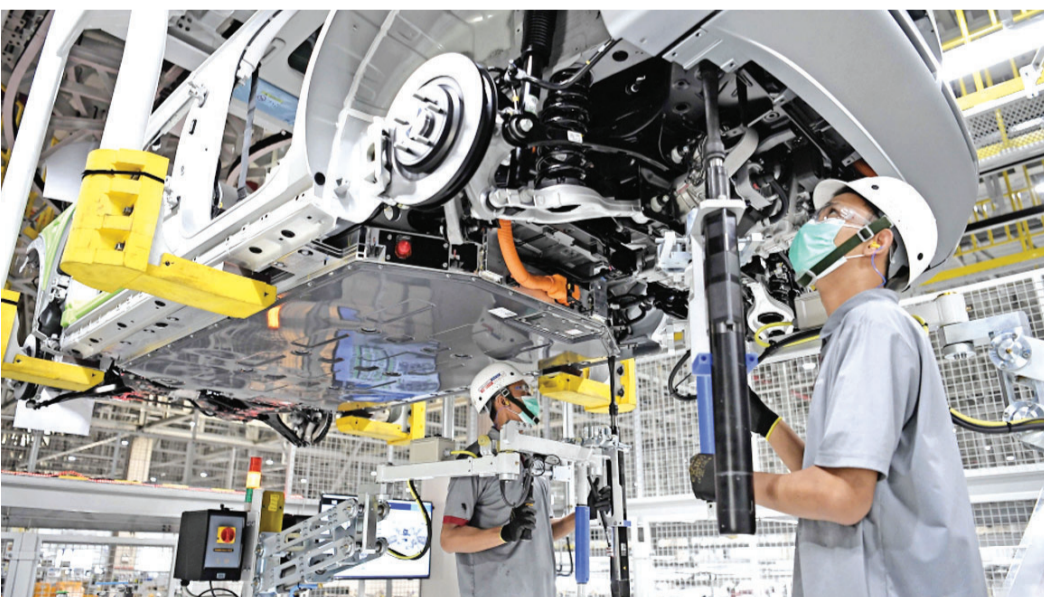
HMMI는 현재 해외 생산법인 중 가동률이 가장 높는데, 여기에 현지 합작법인에서 생산된 배터리셀을 통해 생산부터 판매까지 현지 밸류체인을 구축할 방침이다.

또 베트남 생산법인(HTMV)과 지난해 준공한 '상가포르 글로벌혁신센터(HMGICS)'를 통한 안정적인 제품 개발, 생산, 판매 체계를 구축해 타 글로벌 기업과의 차별화를 노린다.

아세안 지역은 인구는 6억7170만명(2022년 기준)으로, 오는 2050년에는 인구가 8억명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블루오션이다.

현재 아세안 시장은 일본 기업이 독점해온 시장에 한국과 중국 자동차 회사가 가세한 모양새다.

현대차는 2022년 인도네시아 바카시 델타마스 공단 내 HMMI를 준공하면서 아세안 시장 개척을 시작했다. 약 77만 7000㎡의 부지에 오는 2030년



HMMI 근로자가 아이오닉5 차량 하부에 배터리를 장착하고 있다. <현대차 제공>

까지 약 15억5000만 달러를 투자하는 HMMI는 현대차그룹 최초로 아세안에 만든 완성차 공장으로서 관심을 모았다.

현재 HMMI에서는 현지 특화 전라차종인 크레타와 ▲MPV(다목적차량) 스타게이저 ▲중형 SUV 쉐나페 ▲아이오닉5 등 4종의 차량을 제조하고 있다.

HMMI는 올 1분기에만 2만2520대를 생산하며 가동률 110.9%를 기록, 한국 공장(114.9%)을 제

외하고 해외 공장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를 보이고 있다.

현대차는 또 현지 생산 전기차에 LG에너지솔루션과 합작으로 건설한 배터리셀에서 생산한 배터리를 탑재해 전기차 시장 공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인도네시아에 진출한 완성차 업체 중 최초로 전기차 배터리셀부터 완성차까지 현지 생산 및 판매 체계를 갖춘 유일한 기업이 되는 셈이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

27일까지 '렉서스 썸머 케어 서비스 캠페인'

여름철 주요 부품 10% 할인

렉서스코리아가 오는 27일까지 전국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2024 렉서스 썸머 케어 서비스 캠페인'을 실시한다. 캠페인 기간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이용하는 모든 고객에게 ▲에어컨 필터 ▲에어 클리너 엘리먼트 ▲에어케어 ▲냉각수 ▲와이퍼 러버-블레이드 ▲12V 배터리 등 여름철 주요 부품과 공임을 10% 할인한다. 또 엔진룸과 브레이크, 서스펜션 및 하이브리드 시스템 등 최대 70여 개의 항목이 포함된 정기점검 시 20%

할인 혜택을 제공한다. 렉서스 일부 모델의 트렁크 매트 20% 할인 프로모션도 진행되며, 서비스센터에서 50만원 이상의 유상 수리하는 고객에게 인제터 클리너를 증정한다.

일반 보증 기간이 만료된 고객의 경우, 렉서스 공식 서비스센터에서 정기 점검을 받고 이상이 없다면, 엔진과 동력전달계통 주요 부품에 대한 보증을 1년 2만km까지 추가 제공하는 '렉서스 케어 프로그램' 혜택도 누릴 수 있다. 이 외에도 중고차 견적 프로그램도 서비스 캠페인 기간 동안 한시 제공된다. /김민석 기자 mskim@kwangju.co.kr